



특집 : DP World와 Rosatom간에 북극운송회랑 개발 협정 체결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YSU) 2021. 7. 30.

1. 개요

- 지난 7월 23일(금)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Rosatom사 주최 북극의 날 (Arctic Day) 행사에서 러시아정부의 북극해항로(NSR) 인프라 운영기관인 로스아톰사 (Rosatom)와 글로벌물류업체 DP World사는 북극운송회랑(NTC) 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DP World사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NTC 개발에 올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음.
- 로스아톰사는 DP World사와 함께 NTC 경유 Pilot 컨테이너운송 service를 개발할 예정으로 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톡항을 개발할 예정임.
- DP World그룹의 회장은 아시아와 유럽간의 무역 흐름(trade flow)을 다변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러시아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NSR 경유 국제통과운송 물량 목표치는 3천 만톤이며, 2025년에 첫 NSR 경유 국제통과운송 실험 운항이 예정되어 있음. 코메르상트 지 보도에 따르면, 양사간의 협정서에는 8척의 내빙 컨테이너선 건조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 8척의 컨테이너선이 2025년의 실험 운항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 함.

2. '북극의 날' 행사 중 관련 내용 (2세션: 국제 컨테이너 항로 건설과 국제통과운송 개발)

1) DP World사 발표 (술탄 아메드 빈 술라임 DP World 그룹 회장 겸 CEO)

- DP World사는 6대륙 71개국에 148 사업소가 있음. DP World사 항만 터미널은 세계 무역의 10%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
- DP World사는 러시아정부의 북극운송회랑(NTC) 구상을 지지함. NTC는 동쪽(아시아)과 서쪽(유럽)간에 수송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됨. NTC는 화주들이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기에 좋은 one-stop 해결책이 될 것임.
- 북극해항로 경유 시 동남아시아와 북서유럽 간에 최대 19일까지 수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수에즈 항로 운항 (40일 소요) 대비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임 (도쿄>런던 수에즈 경유 시 20,921km vs. NTC 13,679km)
-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급상승했음에도 공 컨테이너를 찾기가 어려움. 팬데믹 시기에 세계는 북극운송회랑 루트가 필요함. 러시아정부가 NTC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DP World사와 로스아톰사는 블라디보스톡과 무르만스크간의 항로 개발을 위해 항만 인프라 등의 건설에서 협력할 것임. NTC 건설에 러시아가 중요함. 러시아에는 철도와 북극항로가 있으니 잘 될 것임.

2)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스아톰(Rosatom)사 발표

- (1) 북극운송회랑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한 추가적인 항로임
 - 로스아톰사의 물류부문 자회사인 Rusatom Cargo사는 2019년 북극운송회랑(NTC: Northern Transit Corridor) 사업 계획을 수립. 북극해의 동부와 서부에 각각 환적 허브항을 구축하고,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피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2) 북극운송회랑(NTC)은 디자인 개발 준비가 되어 있음
 - 2025년에 첫 시험운항(Pilot voyage)에서 컨테이너선 국제통과운송(transit) 예정
 - NTC 항로 기술-시뮬레이션 모델 완료, 최적의 선형 결정, 허브 기술과 위치 선정, 타겟 시장도 결정되었음
- (3) 항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선형 디자인
 - 평균속도는 16.8노트(E > West)로 운항기간은 평균 15일로 예측되지만, 수송기간은 실제 기상 여건에 달려 있음.
 - 2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했고, 100개 이상의 여러 유형 선박 시뮬레이션을 했음
 - 4척의 내빙 컨테이너선을 25년까지 건조 예정 (6,000 TEU/ Arc 등급/ LNG / 쇄빙능력: 2.76m / 파워: 52.5 MW)
 - 러시아, 아시아, 유럽 소재 27개 조선소들의 건조역량을 분석했음
- (4) 허브(Hub) 기술과 위치
 - 서부 허브: 무르만스크지역의 Belokamenka 인근, 동부 허브: 블라디보스톡 상항
 - Pilot capacity: up to 1 min. TEU
 - Berths: 2, quay length – 760 m
 - Quay depth: up to 18 m
 - Vessel unload time: 24 hrs
 - Quay crane: with tandem lift capacity
 - 핵심 업체: FESCO shipping company
 - 202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이 환적항은 1일 이내에 환적 가능토록 설계됨
- (5) 북극운송회랑(NTC)의 타겟 시장 평가
 - NTC는 유럽-아시아간의 통과 운송에 경제성이 있는 옵션으로, NTC는 현 공해 상의 운송 대비 19일이 더 빠름. 평균적으로 유럽-아시아간 현 평균 수송비 대비 20-25%가 더 싼
 - TEU 당 평균 \$80 운전자본비용 절감 가능하며, 일부 고가 상품들의 경우 \$450까지 절감
 - 타겟 산업: 기계 엔지니어링, 목재 및 종이, 가구, 가정용품, 음식, 자동차, 수송, 전자제품, 야금 및 금속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등임.
- (6) NTC는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임
 - 로스아톰사는 DP World사와 함께 NTC 경유 Pilot 컨테이너운송 service를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더 많은 글로벌 회사들(물류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선, 보험회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임.

- DP World가 올해 NTC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2년엔 NTC가 Sustainability + Viability 모두 확보하게 될 것임

3. DP World와 Rosatom사간 북극운송회랑 개발 협력 협정 관련 세부 내용

○ 2021년 7월23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Arctic Day에서 로스아톰사와 DP World사 간에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음. 문서에는 로스아톰사 알렉세이 리하쵸프 사장과 DP World 그룹 회장겸 CEO인 Sultan Ahmed Bin Sulayem씨가 서명했음.

○ 물류사업을 개발하려는 로스아톰사와 물류 비즈니스의 글로벌 리더인 DP World사는 북극 수송 하부구조를 이용한 북서유럽과 동아시아간의 pilot 컨테이너 운항을 개발하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협정을 체결하였음. NSR Infra 운영기관인 로스아톰사와 글로벌 물류 리더인 DP World사가 통합된 북극기반 화물 운송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협력하게 되면, 시장에 선택적인 화물운송로(optional cargo transportation route)를 테스트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믿음.

○ 리하쵸프 로스아톰사 사장은 '북극에서 지속가능한 수송 인프라를 건설하게 되면, 유라시아 수송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것'이라고 함, 단축된 항로들을 통해 환경 발자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이 적용되도록 도울 것이라 말함. 7월 23일 로스아톰사와 DP World사간의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음.

○ DP World사 술탄 회장은 전세계적인 스마트, 공급사슬 물류의 선도적 공급자로서 DP World사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무역흐름을 다변화하려는 러시아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NTC는 동쪽과 서쪽간의 수송기간을 단축시키는 전망을 보이고 있음. DP World사는 이미 러시아직접투자펀드사와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음. DP World사는 NTC가 지속가능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기 위해 러시아의 파트너들과 계속 같이 일을 해나갈 것임.

○ 참고사항: 로스아톰사는 러시아정부의 NSR Infra 운영기관임. 북극운송회랑(NMTC: Northern Maritime Transport Corridor, 혹은 NTC로도 혼용됨)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된 2035년까지의 NSR 인프라 개발 계획 하에 북극해항로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4. 7월 19일(월) 러시아 벨루소프부총리가 푸틴대통령에게 보고한 NSR 개발 계획

○ 푸틴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러시아정부의 전략발전 및 국가프로젝트회의의 온라인 회의 석상에서 벨루소프 러시아정부 제1 부총리는 2030년까지 북극해항로(NSR) 상에 연중 운송이 가능한 북극운송회랑(NTC)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NSR 개발 프로젝트에는 7,160억 루블(97억달러 규모)가 소요될 것이라함. 로스아톰사는 2,500-2,600억루블을 조달할 것이고, 러시아국가복지펀드는 1,300-1,400억루블을 조달할 것이라함.

○ 2020년의 북극해항로 물동량은 3,100만 톤이었고, 2024년에는 8,000만 톤이 달성될 것이라함. 2030년에는 NSR 물동량이 1억 5천만 톤까지 도달할 것이며, 그 가운데 국제통과운송 물량은 3,0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5.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의 의견

- 로스아톰사는 세계적인 물류/항만기업인 DP World사와의 협력 협정 체결로 북극운송회랑(NTC)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극항로를 국제운송로로 개발하려는 러시아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후원자를 확보하였음.
- 러시아정부는 2020년 130만톤이었던 NSR 국제통과운송 물량을 2030년 3,000만톤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함. (이전의 2030년 목표치 350만톤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됨)
- 7월23일 로스아톰사의 발표를 통해 북극운송회랑(NTC) 프로젝트의 동쪽 환적항이 블라디보스톡(전에는 캄차트카항이 검토되었음)으로 변경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
- TSR의 시발점인 블라디보스톡항은 동북아의 새로운 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글로벌 물류/항만기업을 지향하는 DP World사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판단됨.
- DP World사는 러시아정부의 NTC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 유니코로지스틱스의 지분 60%를 인수한 DP World사가 러시아의 북극운송회랑(NTC)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DP World사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복합물류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로스아톰사가 추진 중인 북극운송회랑을 통한 컨테이너 정기 운송의 실현 가능성이 이전 대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6,000TEU급 내빙컨테이너선 8척은 중국 혹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8척 중에는 원자력 추진 선박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음. 북극항로를 세계최초로 항해한 내빙 컨테이너선은 2018년 9월의 실험 운항에 성공한 덴마크 머스크사의 Venta Maersk호(Arc4 내빙등급, 3,600TEU)였음. Masesk사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3,600TEU/Arc4 내빙컨테이너선 7척을 발트해 피더 네트워크에 투입한 상태임. 머스크사의 내빙 컨테이너선 7척은 언제든지 북극항로 정기 운항에 투입 가능한 선박임.
- 7월23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크론슈타트 선상에서 개최된 Arctic day 행사는 로스아톰사가 주최했음. 행사의 1세션은 러시아정부의 북극항로 관계 부처, 러시아 화주(노바텍, 노르니켈, AEON사 등)의 발표나 성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본 특집은 2세션의 주요 내용만을 다룬 것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외국업체로는 유일하게 로스아톰사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DP World 회장만 행사장에 직접 참석했음.
- 일부 ROSATOM의 북극해항로공공위원회 위원들은 유튜브 채널로 초청을 받아 참여했음(일본 MOL, 노르웨이 슈디해운 회장, Aker Arctic,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미코 니니 회장 등)

주요 출처: www.rbc.ru, 2021.7.23., www.portnews.ru, 2021.7.23., www.en.kremlin.ru, 2021.7.23., www.dpworld.com, www.nytimes.com, 2021.7.23., www.rcinet.ca, 2021.7.26. www.seanews.ru, 2021.7.20., www.interfax.ru, 2021.7.19

본 뉴스레터는 해양수산부의 연구지원으로 발간되었음.

480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E동 5103호)

TEL 051) 540-7350, e-mail : ial@ysu.ac.kr

Copyright Institute of Arctic Logistics, 2021, All Rights Reserved

끝.